

봉투 속에 담긴 소중한 선물

유 철민

20여 년 전,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나에게는 5월의 특별한 기억이 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께서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고, 나는 두 살 터울의 어린 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부모님을 기다리다 잠들곤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늦은 귀가시간은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5월에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큰 행사가 셋이나 있었는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그것이었다. 어린이날에는 가족끼리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이 내겐 최고의 선물이었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과 할머니 머리맡에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수줍게 두는 것으로 마음을 전달하고는 했다. 스승의 날에 대해서는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코흘리개였다. 그저 어설픈 연필 글씨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써서 드리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4학년이 되어도 나의 5월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느 때와 같이 치킨과 종이 카네이션으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스승의 날을 앞둔 하굣길에 친구와 함께 걷다가 스승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철민아, 너 내일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 선물 뭐 준비했어?"

"응? 선물을 왜 준비해야 해? 선물 준비해야 하는 거야?"

"너, 4반 반장 아니야? 원래 반장은 선생님께 선물하는 거야. 나도 우리 반 반장이라서 엄마가 선생님 와이셔츠랑 큰 꽃바구니 드린다고 하시던데."

밝은 성격 때문이었는지 1학년부터 줄곧 반장을 해왔던 나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부터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았다. '반장을 하면 선생님께 선물을 해야 하는 거구나. 왜 나만 몰랐을까?'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기운 없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2학년인 여동생은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우리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다.

“미소야, 너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

“응. 내일은 스승의 날이잖아.”

“너 선생님 선물 준비했어?”

“그럼. 나는 선생님께 편지랑 공주님 그림 드릴 거야. 오빠는?”

“.....”

점심을 먹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밥상을 치우시던 할머니께서 내게 물으셨다.

“우리 강아지,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

“왜 말이 없어? 할머니한테 다 말해봐.”

머뭇거리던 나는 힘없이 말했다.

“할머니, 내일 스승의 날인데 반장이면 선생님께 좋은 선물을 해줘야 한다고 광현이가 말해줬어. 나랑 선생님 선물 사러 갈 수 있어?”

“할미가 돈이 어디 있어? 이따 엄마, 아빠 오면 말해보자.”

할머니 말씀을 듣고,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어 따로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에- 오늘은 기필코 부모님께서 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연습장을 꺼내서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사드리면 좋아하실까 하고 고적이기 시작했다. 구두, 가방, 화장품, 꽃다발 등 이것저것 적으면서 기뻐하실 선생님의 모습과 반장으로서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괜히 뿌듯해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예쁘시니까 화장품과 꽃다발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어서야 부모님께서 집에 돌아오셨다. 엄마가 문 앞에서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달려가서 말했다.

“엄마, 내일 스승의 날이야. 나 반장이라서 선생님 선물 사 가야해. 지금 선물 사러가자. 화장품이랑 꽃다발 사면 될 것 같아.”

“애가 이 시간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안자고 있었어? 얼른 들어가서 자.”

“안돼. 선생님 선물을 사야한단 말이야.”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철민아, 스승의 날이라고 무조건 선물을 드리라는 법은 없어. 네가 아빠
한테 준 것처럼 카네이션이랑 감사의 편지를 잘 전달해 드리렴.”
“안돼요. 저 반장이라서 꼭 선물 사가야 한단 말이에요. 선물 사러가요. 지
금.”

20분간 울고 불며 즐라했던 나의 어리광은 결국 훈계와 함께 회초리를 몇
대 맞고 나서야 끝났다.

다음날, 나는 어제 미리 써두었던 감사편지와 엄마가 아침 일찍 사다 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학교를 가야만 했다. 이미 선생님 책상에는 아이
들이 가져온 선물들이 한가득 이었고 내가 가져온 선물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날 결국 선생님께 준비한 편지와 카네이션을 드리지
못했다. 학교가 끝나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집으로 뛰어왔고 점심도 거른
채, 방문을 닫고 울기만 했다. 옆 반 반장 광현이처럼 멋진 선물을 선생
님께 드렸다면 지금보다 나를 더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무
것도 드리지 못했기에 이제 선생님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
에서 떠나지 않았다.

올다 어느새 잠들었던 나는 그래도 준비했던 편지를 전해드리지 못한 것
이 마음에 쓰였다. 저녁을 대충 먹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에 옮겼
다. 평소 선생님께서 내 일기를 보고 자세하게 답글을 써주셨던 터라 이 날
일기는 더욱 자세하게 썼고,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강조해서 넣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께 예쁜 화장품과 꽃다발을 꼭 사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그림 쿠폰’도
그려 넣었다.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게라도 일기를 쓰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다 나갔을 때, 나는 준비했던 일
기와 함께 어제 드리지 못했던 편지와 카네이션을 드리고 도망치듯 뛰어나
왔다. 다음날 일기검사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다시 일기를 돌려주셨을 때,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쓰

셨는지는 너무 궁금했지만, 학교에서 볼 용기가 없어서 집에 오자자마 일기를 열어보았다.

「철민이가 스승의 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나보구나. 일기를 읽으면서 선생님 마음이 많이 짠했다. 선생님이 비밀하나만 말해줄까? 아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선생님이 다 집으로 돌려보냈단다. 선생님한테는 그런 선물보다 철민이가 준 것처럼 카네이션 한 송이에 특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은 철민이 마음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단다. 선생님한테 미안할 필요 없고 오히려 선생님이 고마운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마워, 철민아.

추신: 철민이가 쓴 그림 쿠폰은 나중에 어른 되면 그 때는 선생님이 꼭 받을게.」

분명 어린 나이의 나였지만 안도감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는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그 후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스승의 날이 되면 나는 늘 어김없이 편지 한 통과 카네이션 한 송이를 준비하여 담임선생님께 드렸다. 그리고 '선물은 따로 안 드려?'고 묻는 친구가 있으면 웃으면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때 4학년 꼬맹이였던 내가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그리고 몇 해나 스승의 날을 겪었지만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미리 아이들에게 말한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나요?”

“네. 스승의 날이요.”

“그래요. 내일은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뇌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뇌물은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담은 편지를 말하는 거랍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니까 선생님께 뇌물을 주고 싶다면 편지를 써서 가져오면 선생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다. 먹을 것이라면 과자 몇 봉지를 더 사서 과자파티를 하고, 카네이션은 화분에 넣어서 교탁 위에 올려놓고는 한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이 되는 기분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나에게 뇌물(?)을 받고도 마음이 따뜻해 질 수 있는 가치관을 알려주신 선생님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사는 것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교직의 청렴한 가치관을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